

그리스도의 주권: 소개

오늘 저는 매우 중요한 주제, 즉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관해 여러분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주제는 다른 어떤 문제나 교회의 현대 신학적 논의와는 별개로 그 자체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주제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관한 주제를 다루는 것은 모든 신자가 기본적으로 공부해야 할 주제입니다. 오늘 밤에 이 주제를 논의해야 하는 입장에서 이 주제를 논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일종의 논쟁적인 관점에서 이 주제에 접근하고 싶습니다. 즉, 저는 현재 공격이라고 생각되는 것에 대해 그리스도의 주권을 옹호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주권에 대한 공격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에게 자주 하는 말을 설교자, 연사, 교사들이 하는 말을 들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님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삶의 주님으로 모셔야 합니다. 사실 거의 모든 사람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입니다."라고 간증하며 "이제 그분을 내 삶의 주님으로 모시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컨퍼런스나 수련회 또는 특별 강조 집회에 가면 사람들이 "예, 저는 기독교인이었고 그리스도는 제 구세주이셨지만 제 삶의 주님이 되신 적은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보통 그런 사람들은 인생의 어느 순간에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지만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노력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경험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린 시절이나 젊은 시절의 어느 시점으로 돌아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위한 결단을 내렸으며, 기본적으로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지만 그 순간을 구원의 순간으로 여깁니다.

인생의 다른 시점, 즉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 누군가가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님으로 모셔야 한다고 말했고, 당신은 그것이 두 번째 단계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했고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지 않고,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구세주로만 받아들여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무수히 많은 사람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믿기로 결심했을 때 어느 시점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그 시점에서 그들은 완전히 용서받았습니다. 그 시점에서 그들은 영생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하고 하나님께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기독교인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실 수 있지만 반드시 그분의 주되심을 인정할 필요는 없다는 대중적인 개념을 받아들이고 싶어 했습니다. 나중에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그들은 삶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게 될 것이고, 그때 그들은 단지 기독교인이 되는 것에서 주권 기독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견해는 매우 인기가 있어서 최근에 미국의 주요 기독교 기관 중 한 곳에서 성경 컨퍼런스를 할 때 한 남성이 일주일 동안 매일 학생 단체를 대상으로 연설했는데, 저 역시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학생들에게 "여러분이 진정으로 제자가 되는 시점, 즉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님으로 모시는 시점은 보통 30 대에 온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가 젊은이들에게 30 대가 될 때까지 영적 헌신을 보류하라는 말을 했다는 사실에 조금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견해를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용서를 받고, 천국 보장을 받고, 그러다가 어떤 위기의 순간이 오면, 조만간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실 때까지 원하는 대로 살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 개념이 얼마나 널리 퍼져 있는지 말씀드리고, 앞으로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솔직히 이 개념은 거의 모든 현대 전도의 배경입니다. 텔레비전 전도, 십자군 전도, 경기장, 텐트, 교회 등 거의 모든 현대 전도는 이러한 사고방식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전도지와 책 등은 이러한 사고방식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결정을 내리게 하세요. 사람들이 한 순간에 자신의 필요를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결단하도록 하세요. 그러면 영생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구원을 확신할 수 있으며 언젠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게 될 것이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그들의 삶에는 반드시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이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에 대해 말하고 싶을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복음에 대해 말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은 많은 감정을 사용하고 싶어 합니다. 종종 미묘한 압력을 가하고,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려고 여러 구절의 잔잔한 노래를 여러 번 부르며 조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많은 전도자 십자군 전쟁에서 사람들이 초대를 시작할 때 교회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전략으로, 통로를 따라 내려오도록 선택된 특정 사람들이 흐름을 시작하도록 지시하고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실제로 사람들이 흐름에 참여하도록 펌프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자녀의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그리스도를 위한 결단을 내렸다는 사실에 집착하는 부모들이 있는데, 비록 자녀가 현재 심각한 죄와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하며 살고 있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도 않지만 그 결단 때문에 여전히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집착합니다. 그들은 단지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지 않았을 뿐입니다. 저는 부모님들이 저에게 "제 아들이 동성애자라는 것을 압니다. 그는 그런 생활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제 딸은 그리스도의 일에 전혀 관심이 없지만 구원받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결정을 내렸을 때가 기억납니다." 부모는 이것에 집착합니다. 배우자는 배우자를 위해 이것에 집착할 수 있습니다. 친구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이 구절에 집착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영원히 보장되지만 반드시 삶을 변화시키지는 않으며, 예수님을 삶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분께 삶을 복종하는 것과는 무관한 순간적인 거래라는 생각을 전달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대부분의 현대 전도의 배후에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기꺼이 삶을 바치시겠습니까?"라는 말을 언제 들으셨나요? "당신은 기꺼이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무릎을 꿇고 복종할 의향이 있습니까?"라는 말을 언제 들으셨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삶의 왕과 통치자가 되시도록 기꺼이 허락하시겠습니까?"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이 듣는 것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이것이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 경우에는 이것이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을 만들어 낸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문제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한 유명 기독교 잡지에서 예수님의 주되심은 잃어버린 자에게 증거하는 과정에서 언급하기에 부적절한 주제라고 주장하는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이 잡지는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잡지는 아주 잘 알려진 잡지입니다. 이 잡지는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기로 결단하는 것은 이미 그분을 구주로 신뢰한 사람에게만 가능하므로, 복음 발표에는 주님이신 그리스도께 복종하여 순종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복음 발표에는 주님이신 그리스도께 복종하여 순종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잡지는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는 오늘 오후에 하루 전에 본 영화를 두 번째로 봤는데, 처음 봤을 때 제가 보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방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제작된 영화였습니다. 영화는 몇 가지 그래픽을 사용하고 몇 가지 질문을 던진 다음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묻습니다.

몇 가지 질문이 무엇이고 답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화 내레이터는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질문을 해봐야 할까요?"라고 말했습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 1: 누군가에게 "당신의 마음을 그리스도께 드리겠습니까?"라고 말해야 할까요? 대답: 아니요. 여러분은 누구에게도 그런 말을 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도 그리스도께 무엇이든 드리라고 요구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그리스도께 드리라고 요구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믿으라고 하면 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삶을 내어놓으시겠습니까? 거짓입니다.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포기하라고 요구하지 마세요. 세 번째 질문: 당신의 삶을 그리스도께 맡기시겠습니까? 거짓. 누구에게도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하지 마십시오. 질문 4: 그리스도를 당신의 삶의 주님으로 모시겠습니까? 그분이 내 삶의 주님이 되셔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라고 누구에게도 요구하지 마십시오. 질문 5: 자신의 죄를 회개하시겠습니까? 거짓.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라고 요구하지 마십시오. 질문 6: 당신은 기꺼이 죄를 버리겠습니까? 거짓. 누구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내레이터는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습니까?"라고 묻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요? 악마들은 믿고 - 무엇 - 떨고 있습니다.

또 다른 기독교 잡지는 최근 "이 소위 주권 구원"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기사는 질문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원의 조건으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거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해야 하는가? 두 페이지 분량의 기사에서 저자는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의 주님으로 삼는 것에 대해 10 번 이상 언급했습니다. 물론 저자가 보기에 구원을 받기 위해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을 필요는 없었고, 그것은 여러분이 나중에 한 일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았습니다. 당신은 그분을 구세주로 영접했고 나중에 그분을 주님으로 삼았습니다. 두 페이지짜리 기사에서 10 번이나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으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당신이 기독교인이라면 그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애초에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매우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누군가가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자신의 삶을 내맡겨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는데도 구원받았다는 착각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숨기는 것은 완전한 모순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자신의 삶을 기꺼이 그분께 복종하는 사람에게만 구원이 주어진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만 믿으면 된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반대하는 퍼레이드를 이끌고 있는 한 작가, 아마도 이 주제에 대해 그 누구보다 많은 글을 썼고 제 책에서 자주 인용되는 작가는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참된 복음과 모든 가짜 복음을 구별하는 영적 현신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바로 이 인상적인 사실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주님께서 참된 복음과 모든 가짜 복음을 구별하는 영적 현신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 바로 이 인상적인 사실입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누군가에게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께 헌신하고 죄에서 돌이켜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분께 순종하라고 요구한다면 그것은 가짜 복음입니다. 이제 이것은 만연해 있습니다. 이것은 만연해 있습니다.

또 다른 신학교 교수는 "구원을 위해 반드시 믿어야 하는 복음의 본질적인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간은 죄인이다, 2. 그리스도는 구세주다, 3. 그리스도는 인간의 대속물로 죽으셨다, 4.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이것이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은 죄인이고, 그리스도는 구세주이며,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그 사실들을 믿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이제 이 사람들은 당신이 불신자에게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삶을 다스릴 주권적 권리가 있다고 말하면 복음이 변질된다고 말합니다. 알겠어요? 무서운 말입니다. 불신자에게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삶을 다스릴 주권적 권리가 있으며, 구원을 받으려면 그분께 무릎을 꿇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복음을 변질시킨 것입니다. 또 다른 필자의 말을 인용하자면, "신자가 교제에서 벗어나 특정 유형의 철학에 빠지면 그가 논리적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불신자가 될 가능성이 있고, 심지어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불가지론자인 신자들도 여전히 구원받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거듭났습니다." "무신론자가 될 수도 있지만, 한 번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을 부인하더라도 구원을 잃을 수 없습니다."라는 말을 들어보세요. 저는 여러분이 구원을 잃을 수 없다고 믿지 않지만,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결코 믿지 않는 신자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온 마음을 다해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 장에서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2 장 12 절에서 "네가 만일 주를 부인하면", "그분도 너를 부인하실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구원은 영원하지만 그것이 진짜일 때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사상이 주장하는 것은 당신이 그분을 구세주로 받아들여도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으며, 심지어 불신자, 불가지론자, 무신론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책을 가장 많이 쓴 작가가 구원의 순간에 믿으면 그 순간만 중요하기 때문에 남은 생애 동안 다시는 믿을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을 발견하고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복종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불신자, 불가지론자, 무신론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는 "믿음 안에서 인내하는 것, 즉 믿음을 계속하는 것은 진정한 구원의 요인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요? 제 성경은 골로새서 1 장에서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계속하면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제자로 부르실 때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기꺼이 죽어야 합니다. 쟁기에 손을 얹고 뒤를 돌아본다면 당신은 내 제자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아버지를 장사하러 가야 하는데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를 따르지 않겠다면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제자로서의 부르심, 죽음에 대한 부르심, 희생에 대한 부르심, 목숨을 내려놓으라는 부르심, 순종에 대한 부르심, 복종에 대한 부르심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이 이미 구속받은 사람들을 두 번째 단계로 부르시는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전도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을 두 번째 단계로 부르시는 부르심으로 받아들입니다. 문제는 예수님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회개시키러 왔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습니다."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다면 주 예수님을 전도 사역에서 제외시킨 것이나 다름없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초대에 그렇게하지 않는 한 비 주권 관점을 고수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주신 모든 제자 훈련에 대한 부르심이 너무 강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실제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두 번째 단계로 와서 그분을 주님으로 삼으라고 부르신 것이므로 우리 주님의 사역의 전도 적 의도를 버리고 잃어버린 자를 찾고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무시합니다. 예를 들어, 달라스 신학교의 전 총장이었던 루이스 스페리 채퍼의 조직신학은 3 권 385 쪽에서 "구원의 추가 조건으로 필요를 강요하고 하나님께 삶을 내어주는 것은 가장 불합리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코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대한 부르심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코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대한 부르심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까? 또 다른 필자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도록 권유하는 것은 복음을 왜곡하는 것이라는 놀라운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런 주장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저는 다소 오래된 출처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처럼 널리 퍼져 있지는 않았고, 제가 이 문제를 조금 선동하고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구체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드러내야 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자신감 있는 삶이라는 잡지에 글을 쓰는 또 다른 작가는 "비기독교인에게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제시하는 것은 구원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더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책이 지지하는 내용입니다.

죄에서 돌이킬 필요도 없고, 그로 인한 생활 방식의 변화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 대한 헌신이나 굴복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것이 왔도다." 얼마 전에 마음에 와 닿았던 구절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이미 다 읽은 책으로 돌아가서 거기에 넣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은 "주를 믿는 자에게는 더욱 귀한 것이니라"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소중합니까? 믿는 자에게 그분은 무엇일까요? 그분은 소중합니다. 소중하다고요. 그게 무슨 뜻이죠? 귀중하고, 값비싸고, 가치가 높다는 뜻입니다. 그게 그분의 주권입니다. 그분은 참된 신자에게 소중합니다. 이 모든 것의 결과, 그리고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말할 수 있는 다른 많은 것들과 다른 많은 예가 있지만 모든 것의 결과는 결함이있는 교리입니다. 이 모든 것의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것보다 적은 구원입니다. 현대 복음은 모호합니다. 현대 복음은 죄인이 용서를 받고 싶은 순간,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계속 살면서 미래에 천국에 묶여 있기를 원하는 순간에 거짓 희망을 제시합니다. 아마도 나중에 그들은 아무도 말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알면 주님으로서의 그리스도에 대해 걱정할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싶으세요? 12억 명의 사람들이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합니다. 그걸 믿으시나요? 전 세계 12억 명이 기독교인이라고 믿으시나요?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3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속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야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다면 정말 구원받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할 것입니다!"라고 말한 작가 중 한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느낌표.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문은 좁고" - 뭐 - "찾는 이가 적다." 예를 들어,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9~10절에서 심각한 죄인들과 그들의 악행을 열거하면서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거나 탐람하는 자나 술 취한 자나 후욕하는 자나 사기꾼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이들 모두가 신자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모두 왕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들은 왕국에 들어가지만 왕국을 상속받지 못합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모르겠어요. 1단계 사람들은 그곳에 가고 2단계 사람들은 상속을 받죠. 그러니까 왕국에는 1단계 그룹을 위한 빈곤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는 또한 갈라디아서 5장에서 그 사람들에게 대한 묘사를 말합니다. "육체의 행위는 부도덕, 불결, 관능, 우상 숭배, 마술, 적대감, 분쟁, 질투, 분노의 폭발, 분쟁, 반대, 파벌, 시기, 술 취함, 방탕" 이런 것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그런 사람들도 그리스도인이지만 상속받지 못할 뿐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전체 아이디어는 어느 순간에 결정을 내리고, 받아들이고, 믿고, 무엇이든 간에 무언가를 한 사람들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이며, 우리는 그들의 삶에서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으며 그들 모두가 구원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디어는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사람들은 왜 이런 일을 할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은혜에 대한 간절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한 작가가 말했듯이, 사람들은 은혜가 너무 은혜롭기를 원했습니다. "당신이 감히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해 달라고 간청한다면, 그분은 당신을 구원해야 할 것입니다. 그분은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입니까?" 그들은 죄인이 한 순간에 "믿습니다"라고 말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즉시 그를 구원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영원히 구원해 주실 정도로 은혜로운 은혜를 원했습니다.

두 번째는 한 번 결단한 불신앙으로 죽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신학을 개발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현대 운동이 생겨났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신학적 제약보다 친척을 지옥에서 구하기 위해 지옥 교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고요? 영원한 지옥을 부정하는 경향을 보이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이 지옥에 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리를 부정하여 사람들을 자신의 마음에서 벗어나게하고 싶어합니다. 이 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결정을 내린 후 한때 인정하기로 결정한 모든 것을 부정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게 대한 혼란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들은 그들이 영원히 구원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들을 왕국으로 포용 할 수 있는 신학을 개발합니다. 그들은 그 안에 있지만 그것이 무엇이든간에 그것을 물려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책 제목 중 하나가 '배고픈 상속'입니다. 그렇다면 팔복은 두 번째 단계의 그리스도인을 가리킵니다. 나머지 그리스도인들은 상속받지 못합니다. 두 번째 수준의 사람들은 상속받습니다. 그들은 첫 번째 수준의 사람들이 갖지 못한 것들을 소유합니다.

육적 그리스도인은 구원받기로 결심하고 용서를 받고 천국의 보장을 받은 후에도 여전히 자신이 왕좌에 있으면서 완전히 혼란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예전에 캠퍼스 십자군에서 배포한 작은 소책자가 있었습니다. 그 책자에는 온갖 혼돈과 자아가 왕좌에 있는 원이 하나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재생되지 않은 자연인이었습니다. 두 번째 원에는 온갖 혼돈이 있고 자아가 생명의 왕좌에 있고 성령이 그 원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것이 안전한 사람입니다. 성령은 거기에 계시지만 그분은 단지 책임자가 아닙니다. 세 번째 원은 인생에 완벽한 질서가 있고, 작은 보좌가 있으며, 성령이 보좌에 있고 자아는 구석에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삶을 지배하는 사람들의 범주를 반영하고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완전히 혼돈에 빠져 있습니다. 아무것도 변화된 게 없죠. 성령이 어딘가에 계시지만 그분은 아무것도 통제하지 못한다는 점을 제외하면 첫 번째 원,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과 똑같은 혼돈입니다.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특별한 관점에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일반적인 요청은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세요. 결단하세요. 믿으세요." 그리고 그게 다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이 성경적인 생각과 개념입니다. 그 자체가 거짓이라는 것이 아니라 너무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려면 기도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약간의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 "이제 당신은 구원받은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예수님이라면 어떤 종류의 초대를 사용했을지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하며 약간의 확신을 줍니다. 모든 것을 버려라. 당신의 삶을 내려 놓으십시오. 내 권위에 복종하십시오. 당신의 죄에서 돌이키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순종하라." 앞으로 3 주 동안 우리는 세 가지 주요 영역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 말씀합니다. 구원하는 믿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것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참된 회개의 본질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룰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쉬운 믿음주의"라고 부르는 관점입니다. 이들은 구원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기만 하면 되는 간단하고 쉬운 문제라고 주장합니다. 한 신학 저널에 글을 쓴 또 다른 옹호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죄로부터 구세주로 믿어야 하며, 또한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의 주님으로 믿고 그분의 주권적 권위에 복종해야 한다는 견해를 갖는 것은 이단입니다." 그렇게 믿는 것은 이단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들은 헌신이라는 단어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행복이라는 단어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적절하고, 믿고, 받는다는 단어를 원할 뿐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잘 알려진,

정말 효과적인 사역을 하는 한 지역 목사는 "구원받는 믿음은 주님께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진정한 신자들도 배도에 굴복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들은 완전히 믿음에서 떠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 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의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누구든지 복음 안에서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영혼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말씀은 불신자를 초대하는 말씀이지 그리스도인을 두 번째 단계로 초대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행동하지 않으면 영혼을 잃게 될 사람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남자가 영혼을 대가로 무엇을 줄까요? 이 간음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인자도 그를 부끄러워 할 것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면 그분도 당신을 부끄러워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말씀이 육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대한 다음 단계의 헌신으로 이끌기 위해 하는 말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하지 않으면 영원한 영혼을 잃게 될 사람들에게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많은 예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복음을 전한 기록자 중 한 사람은 니고데모와 세 번째 장에서 예수님이 뱀이 들려진 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 뱀을 바라본 모든 사람이 고침을 받았고, 인자가 쳐다보고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면 용서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 나중에는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의 진리를 말씀하신다는 사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14 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리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보고 믿기만 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보고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보고 믿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에는 생명을 바친다는 생각도 없고, 바라보는 이의 승천에 대한 의문도 없으며, 환상의 대상에 항복할 가능성도 없다"는 한 사람의 말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그냥 보고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들은 요한복음 4 장에 나오는 우물가의 여인에게 가서 예수님이 "마셔라"라고만 말씀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잊고 있는 것은 여인이 "내가 마실 물을 주소서"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 물을 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그녀의 죄에 대해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아직 다루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 절에 나오는 비유는 매우 유사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기뻐하여 숨겼느니라. 그는 가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샅니다." 또 다른 비유: "천국은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습니다. 그는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자마자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그 진주를 샅습니다." 아주 간단한 비유입니다. 사람은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그것을 취했습니다. 저는 구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들판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평생 그것을 찾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보물을 발견하자마자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팔아 보물을 얻었습니다. "나는 그분의 모든 것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라는 교환의 그림입니다.

이 비유로 무엇을 하려고 하나요? 글쎄요, 당신이 비 주권 구원을 고수하고 아무것도 포기할 필요가 없다고 믿으려면 이 비유를 가질 수 없습니다. 이교도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께서 제공하는 모든 것을 받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밭에 묻힌 것은 교회이고 그것을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비유는 경륜에 따라 교회를 찾은 예수님이 교회를 사기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것이 었습니다. 문제는 보물이 밭에 있었고 진주는 엄청난 가격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신이 세상의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 확인하는 데 누구에게도 도전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그것은 다소 모호한 치료법 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한 작가는 매우 인기 있고 훌륭한 스터디 성경을 집필하기도 했는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삶에서 떠나 옛 본성을 따라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같은 종류의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은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에 반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은혜를 오해합니다. 그들은 탈복한 사랑하는 사람들을 수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더 많은 사람들을 천국에 데려가서 복음을 확장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경과 맞지 않습니다. 성경에 맞지 않아요. 성경이 가르치는 것과는 다릅니다.

성경의 모든 구원에 대한 부르심 아래에는 그리스도의 주권적이고 권위 있는 주되심이 있으며,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여러분 중 일부는 레벨 1에 불과하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단계에 온 분들은 그 헌신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 약속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건 말이 안 되죠. 여러분이 마음과 영혼을 그리스도께 드리고 복종하는 구원을 위해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복종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으로 그분께 삶을 내어드렸을 때, 여러분은 그분이 주님이 되시는 삶을 시작했고 점차적으로 여러분의 삶은 그분의 주되심에 대한 순종을 증거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에는 십자가에 대한 사도적 설교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남은 수세기 동안의 교회 생활에 대한 설교 패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은 주님이라고 92번, 구세주라고 2번 불립니다. 주로 그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되심은 초대 교회 복음 전파의 핵심이었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그분의 주되심을 확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이 임하리라"고 말합니다. 주님,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성경의 모든 곳에서 그렇습니다. "빌립보 간수에게 사도행전 16장 31절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합니다.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요한, 3장 36절을 주목해 주세요. 이 구절을 들어보세요: '아들을 믿는 자는' - 이 생각을 따라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느니라.' 이것을 들어보세요: '그러나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믿음은 '순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둘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 무엇 -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12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나니 이는 한 분이신 주님이 모든 사람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 13절 -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은 주님이시며 주되심은 그분이 주권자이심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그가 책임자임을 암시합니다.

복음서와 신약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주님의 주권에 대한 확언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저는 로마서 14장 9절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 뭐라구요 - "주"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주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밖에서의 첫 번째 전도, 사도행전 10장 36절: "그분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평화'라고 설교했습니다. 그분은 만유의 주님이십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래, 그래, 그래, 하지만 주님은 신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단지 신을 의미합니다. 그냥 신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주권적인 주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순종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항복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복종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신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분께 복종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한 작가는 쿠리우스, 주님을 주권적인 주인이라는 의미로 만들면 그분의 신으로부터 신앙에 대한 부름을 빼앗는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우스꽝스럽습니다. 주님이라고 하면 신과 주권적 주인을 모두 의미할 수 있습니다. 강한 사람이군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라는 단어가 주권자라는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고해서 주님이라는 단어에서 신이라는 개념을 제거 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은 신을 가리킵니다. 주님은 예수님이 신이라는 뜻이지만 신은 그가 책임자라는 뜻입니다.

언젠가 이런 견해를 가진 분과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는 "쿠리오스는 단순히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뜻이라고 믿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좋아요, 인정합시다. 인정할게요. 쿠리오스는 그가 신이라는 뜻이죠. 하나만 물어볼게요. 신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당신이 책임자라는 뜻인가요? 당신이 책임자라는 뜻이 아니라면 신이라는 뜻도 아니죠." 그런 말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분이 신이라면 그분이 책임자입니다. 그가 신이라면 그는 주권자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없습니다. 도마는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도마는 부활 후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뭐라고 말했을까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가 신을 지칭하기 위해 주님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사용했다고 생각하세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했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신성을 인정했고 주님은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이 용어에는 권위, 지배권, 통치할 권리, 명령할 권리, 믿고 순종해야 할 의무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 장 16 절에는 "그러나 이런 이유로 내가 긍휼을 얻었으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생을 얻기 위해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본보기로 그분의 완전한 인내를 내게 보이려 하심이라. 이제 영원하시고, 불멸하시고, 보이지 않으시고, 유일한 하나님인 왕께..." 유일한 신이 누구냐고요? 그분은 왕이십니다. 그분은 왕이십니다. 그분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분을 주님으로 긍정하지 않고, 그분께 자신의 삶을 복종시키지 않고 반역하며 사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맥아더, 당신이 가르치는 것은 인간의 행위로 얻는 구원입니다." "당신은 사람이 구원의 은혜를 받기 전에 스스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죄로 죽은 죽은 인간은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왜곡된 구원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전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 장 3 절에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한다고 말하는 자가 없음을 너희에게 알리노니"라는 성경 말씀이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 구절을 보세요: "그리고 아무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님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회개는 인간의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구원하실 때 회개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분의 영으로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확신을 그들에게 부여하십니다. 이제 이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할 것이지만, 여러분이 이 문제를 이해했으면 합니다.

17 세기 영국 청교도인 존 플라벨은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그분의 모든 직분이 포함됩니다. 복음 신앙은 그분께 복종하고 그분께 영접하며 그분의 삶의 거룩함을 본받고 그분의 죽음의 대가와 열매를 거두기 위해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일 뿐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임에 틀림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훌륭한 저술로 빛을 지고 있는 A.W. 토저는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남자와 여자에게 분열된 그리스도, 즉 구세주이기는 하지만 주님이 아닌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촉구하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누구도 그리스도의 절반, 그리스도의 1/3, 그리스도의 1/4 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직분이나 일을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한 인격체, 즉 그분이 하신 일뿐만 아니라 그분의 모든 충만함을 믿음으로써 구원받습니다. 이 문제를 대담하게, 아주 대담하게 이해하려면 마태복음 19 장에 나오는 한 가지 예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죠. 우리는 그것을 살펴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19 장 16 절에 예수님의 전도에 대한 가장 좋은 예화가 나옵니다. 16 절, "한 사람이 예수께 나아와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것이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내게 묻느냐? 선한 사람은 오직 한

분뿐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삶에 들어가고 싶다면" - 무엇을 하십시오 - "계명을 지키십시오." 그게 정답인가요? 그게 정답일까요? 누군가 당신에게 와서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묻는다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당신은 그것이 행위라고, 그것이 행위라고, 그것이 행위라고 말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오, 믿어라, 결단하는 것만 빼고"라고 말하지 않으셨을까요? 순간적으로 믿으라고 하셨죠. 아니, 계명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계명을?" 18 절입니다.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은 십계명 중 십계명의 후반부를 골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율법이 말한 것은 사람의 행동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각 생활에 대해서도 말한 것"이라고 하신 말씀에 따라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적인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청년은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습니다. 내게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는 내 삶을 보면 완벽하다고 말합니다. 살인을 하지 않아요. 아무도 미워하지 않고 간음한 적도 없고 간음에 대해 악한 생각을 해본 적도 없어요. 훔친 적도 없고 탐내지도 않았습다. 거짓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거짓말을 할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평생 아버지와 어머니를 완벽하게 공경했고 저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이나 모든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거짓말쟁이 들어보세요, 구원이 사실을 믿고 천국에서 용서받는 문제라면 예수님은 그 남자에게 "여기 사실이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그러나 그분이 그에게 말씀하신 것은 당신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당신의 무엇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라고 하셨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다.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에게 "좋아"(21 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온전하고 완전해지고 싶다면,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고 싶다면,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러면 천국에서 보물을 가지고 와서" - 무엇을 하세요 - "나를 따라오세요." 첫 번째 시험은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나의 주권에 복종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에게주는 첫 번째 명령은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주는 것입니다. 그렇게하면 구원을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까? 아니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명령을 기꺼이 따를 수 있는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는 내가 그렇게 영생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슬퍼하며 돌아갔습다. 그는 많은 재산을 소유했습니다. 그는 재산을 소유하고 재산을 소유하고 비극적으로 지옥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두 가지가 분명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영생을 원한다면 단순히 몇 가지 사실을 믿고 결단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죄를 인정하고 돌이켜야 하며,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일, 가장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라고 해도 기꺼이 나의 권위에 복종할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첫째, 당신의 죄의 깊이와 둘째, 내 주권의 높이를 확립합시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 남자는 떠났어. 아주 명료한 예시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나아와 진정으로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영을 움직여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게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구원받는 믿음의 본질, 즉 그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오늘 밤 당신의 말씀 안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어 감사합니다. 이 진리를 저희 마음에 확증해 주시고, 사람들이 미혹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구원의 진리를 올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을 위해, 아멘.